



러시아 언론인 사절단 간담회

지난 11월 6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러대화(KRD)가 협력하여 진행한 “2019년 한-러 언론인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한 러시아 언론인 8인이 러시아연구소와 러시아센터를 찾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세르게이 니



콜라예비치 일첸코(상트페테르부르크대 언론학부 교수, RTR 부국장/앵커)를 대표단장으로, 예바 미하일로브나 메르카쇼바(<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 기자), 드미트리 알렉산드로비치 사보프(<오가록> 편집부국장), 다리야 알렉산드로브나 판키나(KP.RU 부국장), 안드레이 아나톨리예비치 고르부노프(라디오 <콤소몰스카야 프라브다> 편집장),

발레리 빅토로비치 비주토비치(<로시스카야 가제타> 기자/앵커), 아르멘 알베르토비치 케란(세계러시아언론협회 제1부국장), 콘스탄틴 올레고비치 토칠린(러시아 공공텔레비전 방송국장) 등, 러시아의 거물급 언론인들로 구성된 사절단은 2시간 여에 걸친 간담회에서 한국내 러시아학의 현황, 국내 러시아학에 있어서 서울대 러시아연구소와 러시아센터의 역할과 그 위상, 그리고 러시아연구소의 연혁과 주요 활동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간담회를 진행한 강정원 러시아연구소장의 연구 관심분야인 시베리아의 샤머니즘에 대해 각별한 흥미를 표하면서 사절단장인 일첸코 교수는 샤머니즘에 관한 향후 연구에 의미있는 조언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후 한러 외교 30주년 행사의 개최에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의사를 밝혔다.

